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호 화엄사각황전앞 석등



내 마음의 화엄

이지업

내 마음에 늘 불 하나 켜 있습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지리산 굽이굽이를 돌아
낮은 곳으로 내리는 물소리처럼
늘 무릎 낮추는 기도의 등불 하나 오롯합니다

거친 너와를 층층이 없고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삼아도
수수백 년 비바람 견뎌온 너와집처럼
지리산도 못난 것들이 서로 등을 맞대 마칩네
견고하게 어깨를 맞대 서 있는 집,
등잔집 하나 켜 있습니다

마음의 흰소를 찾아 저갯거리 들락거려도
이 꽃저 향내 피아골을 다 헤매어도
끝내 찾을 수 없던 길
길 끝에 화엄의 절벽
만행(萬行)의 무릎에도 보이지 않던 길
받침돌에는 금새 피어날 듯 연 봉오리,
기둥에선 등기등등 장고소리 남은 사랑을 울리는데
연꽃무늬 날렵한 8각의 화사석(火舍石) 사이,
동서로 남북으로 은은히 번지는 불빛이여
그 지붕돌 꼭대기 하늘 위로 차오를 듯 사뭇한 귀꽃이여

그 불빛과 꽃의 울음들 내게 있어
나 이 저녁 평온합니다
그것이 있어 저울처럼 깨끗한 물소리 흘러가고
명리와 자리와 구름 다 도락거린 자리
묵상하는 그늘처럼 환합니다
들끓던 소리 다 물러가고
참 조용합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지업 시인은... 1982년 <한국문학>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씨앗의 힘> 및 시조집 <해남에서 온 편지> 등.

수좌들 법석서 세상을 논하다

수좌회, 범어사에서 담선법회 성료

고려 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담선법회(談禪法會)가 다시 열렸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무어·지환, 이하 수좌회)는 2월 12~15일 부산 범어사에서 담선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교수사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돈황본 육조단경>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승남 5~20년의 신·구참 수좌스님 100여 명이 참석해 실참과 탁마의 시간을 가졌다.

12일 입재법회에서 수좌회 공동대표 지환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방 스님들이 해제기간에 선어록 강좌를 통해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경전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법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범어사 선원 유나 인각 스님(前 수좌회 대표)은 축사에서 "(육조단경)은 망망대해를 가는 선장에게 지남과 같은 어류이다. 이번 행사가 훌륭한 한국불교의 지도자·선지식 배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환영사에서 "범어사가 선문종장 경허 스님을 모시고 선찰대본사로 명명한 이래 오늘 가장 큰 법석이 마련됐다. 법회가 여러 선원의 수

좌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좌회 공동대표 무어 스님은 입재법문에서 "담선법회는 발심법회라 해도 좋다. 고려 시대에는 매3일마다 담선법회가 열리고, 법회가 끝나면 용맹정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두 참구에는 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우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강연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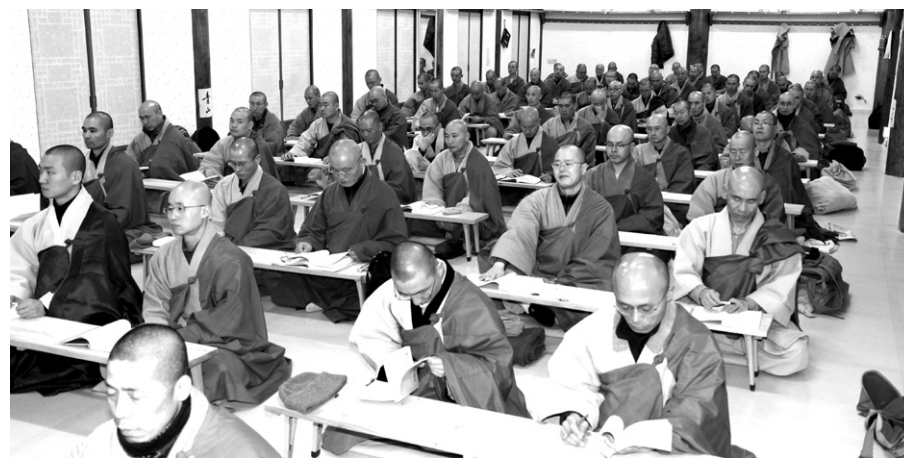
폐쇄적 지적 받던 수좌스님들
"역동적 수행 문화 만들겠다"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스님은 법회 시작에서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법회에 처음 적용해 본다. 오늘 이 자리는 한글로 읽으면서도 뜻을 설명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도 된다"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육조단경>이 말하는 불교의 핵심가치를 '중도'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정신은 중도이며, 화두를



2월 12~15일 범어사에서 열린 담선법회에는 100여 수좌스님들이 참석해 선에 관한 담론을 나눴다.

타파하는 것은 곧 중도를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선방에서는 경전을 등한시 한다. 화두일변도로 중도를 체험하면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인식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게 된다"며 경전 공부와 인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일체가 공(空)하다고 한 것은 오온이 연기하기 때문에 공한 것"이라며 "우리 몸이 수억 개의 원자덩어리로 이뤄진 만큼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공을 이해·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시각을 바꿔 생활하고 이것을 사회화

키면 개인은 물론 세상까지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수좌회 공동대표 지환 스님은 "이번 담선법회를 통해 사회와 대중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수행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강좌가 수좌스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환 스님은 "시대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간화선은 물론 수좌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회 후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매년 한차례씩 담선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실승' 이 종단 변화 이끈다

퇴휴 스님 상임대표 재추대
총선 앞두고 제 역할 다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새로운 대표단을 확정했다. 퇴휴 스님은 상임대표에 재추대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제16차 정기총회를 조계사 안심당에서 2월 16일 개최했다. '실천'은 올해 사업 기조를 ▷창립 20주년 기념과 중·장기 비전 마련 ▷중핵기능 강화(개혁성 강화) 및 종단 자성과 쇄신 운동 활성화 ▷빈민지역개발 등 국제구호사업 영역 확대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법인화 사업 추진 ▷진성회원 확보로 설정했다.

종단 주요 혁신 과제 제안 및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선거법 개정, 기명표결 및 불징계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앙총회법 개정, 비구니 참중권 확대, 계과 문화청산, 총무원장 정치적 중립 및 탈계과 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가칭) 비전위원회도 운영된다. 비전위원회는 임원 및

일반회원 중 5~7명과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되며 '실천'의 20년 역사 평가와 시민사회 및 종교운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20주년 기념 법회가 예정된 10월 경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천'은 또 올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불교계 여론을 결집하고 생명평화사상에 입각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제안 활동을 펼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진보적 인사를 가려낸다는 구상이다. '실천'은 또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또 설립 20주년을 맞는 2012년 대표단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는 퇴휴 스님이 재추대됐으며 공동대표에는 법정 지관 혜조 재범 정후 스님이 선출됐다. 대표단 6인 중 절반인 3인이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돼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총선과 대선이 있고, 종단에서도 내년엔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실천'의 정신에 맞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개신교,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태극'

불교 편향적 지원이라며 '불만'
문광부 즉각 해명자로 발표

개신교계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에 대해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문광부가 전통문화 지원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과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을 중심으로 개신교계에는 정부의 불교편향 지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2월 10일 보도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백중구 공공정책포럼 문화정책 전문위원은 정부가 불교에만 선택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문위원은 "한국사회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존 종교행정 관행을 무시하고 유독 불교만 선택해 특혜를 줬다. 정부가 불교문화유산을 지원할 때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특정 종교의 포교라는 종교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같은 날 즉각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불교에 대한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교수목원 설립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2차 토론회'를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 환경에너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수목

원 현장답사와 주요 사찰 현황'(박희준 사찰생태연구소 팀장), '불교수목원 계획 원칙 및 지침'(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불교수목원 설립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박기범 기자

2012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2
일시_ 2012.03.15(금) ~ 03.18(일) 3일간
장소_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2전시장
주최 |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Expert (주)엑스퍼트
후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불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태고총림선암사
참가문의 |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062-383-6322